

建築人の活路

晶園建築尹太鉉

10年成長의 意義

建築士協會가 誕生한지 於焉 10年. 10年이면 江山이 變한다고 하는데 어린애가 이 世上에 태어나 幼年期를 거쳐 少年이 되어 이제 막, 青年期에 들어섰다 할까, 또는 基本設計 過程을 마쳐 本設計 段階에 들어섰다 할까, 左右間 그 間의 자라온 過去를 도리켜보고 現在의 処地를 再考, 앞으로 進路를 定立하여야 할 重要한 時點에 이른것만은 누구나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少年期나 基本計劃時는 어디까지나 過渡期라 본다. 따라서 모든 點에 未完成으로, 未熟하고 不安하고 모순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少年이여 大志를 갖어라”라는 名言이 있듯이 또, “逆境은 善者에게 빛나는 좋은 機會다”라는 말과 같이 希望을 갖일수있는 時期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協會는 여러가지 未熟과 逆境을 겪고 오늘에 이른데 對해서 우리는 그 過失을 責하기에 앞서 歷代 關係任員들과 職員들께, 爲先 그 功績을 表彰하여야 할 것이다.

人間에겐 原來 完全을 期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會員과 모여서 이룬 協會일진데 完全한것, 滿足한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 自体가 모순이라 본다.

그러나, 完全을 尙해 努力하는 것이 또한 人間이기 때문에 이 努力한다는 것이 眞實일때 人間の 價値를 認定받는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眞實한 努力을 協會를 爲하여 다 해왔느냐 아니면 私利를 爲主로 假飾된 努力을 爲主로 한것이냐를 自然히 判가름하게 된다.

協會가 10年이란 年輪을 자라온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쉽고 부끄러워할 몇가지 點을 들어보자.

먼저 우리 建築界에 人材가 없다는 말을 흔히 들어왔다. 勿論 協會란 어느 個人의 資格이나 能力으로만 다 할 수 없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면 二年任期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야했던 會長이 많았다는 것은 어디에 그 原因이 있었을까, 왜? 우리가 總會에서 選出해 놓고 왜? 우리가 물러나라고 해야했을까,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個人事情으로 會長職을 그만두겠다 라고 辭退할 境遇 “당신 아니면 않되겠으니 재발 더 手苦를해 주십시오”라고 異口同聲으로 會長 留任을 바랄수있는 人物이 되어야 한다는 이는 理想論에 屬하겠는가.

다음은 人和가 問題인 것이다. 우리는 李朝가 亡한 原因이 党派싸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좁은 땅에 살면서 거기에 建築이란 한 分野에서 從事하면서, 旧協이다 新協이다, 서울大다, 漢陽大다, 大家다 新人이다 등등 쪼개 봤자 무엇이 남겠는가 이는 會員 各自의 責任이요, 自覺에 關한 것이다. 每 總會때마다 우리는 自己 얼굴에 침을 뱉는 추태를 일삼아왔다. 이

中에 어느 過激派는 總會場이 마침 自己의 안방인 양시
끄럽게 떠들어대면 된다는 式을 써왔다. 所謂 “總會꾼”
이란 내임이 붙어다니는 친구다. 會員 各自은, 누구나
다같은 知識人이요 좋은 人格을 그리고 同等한 權利를
갖인 建築人인 것이다.

彼此 尊敬하고 아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망신은 없
을 것이다.

끝으로 여러가지 列挙하기는 삼가하고 우리가 協會
創立10年の 意義로 보아, 가장 바라고 싶은 또 하나는
會員이 “잘 살수있는 길”의 方向 設定이 아쉽다고 본
다. 會員 各自의 호주머니에서 걷은 會費를 協會 予算
를 定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느곳에 어떻게 쓰여져야가
장 보람있을가 하는 問題가 重要하다고 본다. 말하자
면 予算을 타서 쓰는데 急急하다는 印象, 即, 一般의
인 事務나 會議項目보다도 좀더 긴 眼目으로 본 事業
計劃에 立脚한 重点的인 項目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 結果的으로 建築士가 社會로 부터 그 地位
를 認定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技術과 所得의 向上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그 具體
的인 方案은 다음 運營問題에서 論해본다.

建築人에 對한 社會認識

建築을 志望했을 當時, 나는 어딘지 “멋”있는 職業
으로 生覺했었다. 그림을 그리고 現場을 指揮하고 돈
도 번다.

그러나 요즘 이 “멋”있는 職業에 對한 觀念이 차차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어진 狀態다. 建築이 芸
術, 科學, 企業, 綜合의 豪華한 述語는 감히 말하기
힘들게되었다. 하루에 몇件, 아니 몇 10件씩 設計를
注文받고 짧은 時間內에 싼 값으로 그려 재키는 판이
니. 여기서 어찌 무엇이 나오겠는가, 우리 建築士는
嚴然히 最高學部를 마치고 國家考試를 거쳐 科學者인
同時에 藝術人으로 自負하여야 할 地位에 어찌서 代書
士나, 福德房 영감에 比肩할 보수나, 待遇를 甚受하는
데 까지 轉落하였는가. 于先 그 根源을 캐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辯護士나 醫師하는 친구들은 부럽다. 우리가 別로
다르지 않게 學費들여 工夫하고 國家考試에 合格하였
지만 社會人의 이름에 對한 待接은 相當하다. 이빨이
하나 빼려와서도 고분고분 하라는데로 달라는데로 服
從한다. 그만큼 어렵게 相對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 設計費를 깎아주어야하고 建築主에게 白眠親를 받
어야 하나, 왜, 建築人이라면 그 技術을 認定받고, 그
人格을 尊敬받는 存在가 못된단 말인가.

먼저 내 自身을 돌아 봐야겠다. 나를 알아달라기 以
前에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아야겠다. 木手나 業
者가 그러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代書해서 준 事
實이 있는지. 坪當 1,000원도 안되는 設計費를 받으

면서까지 “던핑”한 事實 그리고 會員 서로가 龍虎相
爭格으로 모략해서까지 일을 딸리고한 事實등등 여기
에 設計나 監理에서 期日이나 約束의 不
履約으로 信用을 잃었다면 果然 建築主, 即, 社會人에
게서 좋은말, 좋은 認識을 받을 수 있겠는가? 常識에
屬한다. “誠意를 다해, 處分을 바란다”는 것이 適合
한 말이다.

다음은 建築에 對한 建築人의 姿勢인 것이다. 建築
이 어디까지나 創作的인 以上, 이는 建築人의 生命이
요. 子息이라 본다.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自己에
게 맞겨진 以上, 그 建物은 平生을두고 아니 後世에
까지 讚아니면 욕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
된다. 여기에는 勿論 꾸준한 技術開發 새로운 것에 對
한 研究가 뒤 따라야 한다.

希臘의 “팔레는 神殿, 에집트의 피라미드” 뉴욕의 “UN
總會” 등등 歷代 建築이 現代에 이르기까지 산 證據
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를 設計한 建築家는 따라서
그 名聲이 빛은 갖는것이다. 反面에 엉터리 設計로지
어진 建物이 차차 그 缺點이 드러나고 不便하여 마침내
헐어버리지 않으면 沒되게 되었거나 不得已 살고있
고 하더라도 이에 對한 怨望은 두고두고 이를 設計한
建築家의 뒤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社會에서 認定받는 位置를 갖
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릴것이 아니라,
서로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4寸이 땅을 사면 배
가 아프다는 偏見을 떠나서 各己 長點을 살리고 短
點을 補完하여 人物을 排出하자는것. 即 다시말해서
建築法 改正이다, 稅率 調整이다하여, 그때마다, 局
長이나 長官, 또는 國會議員 뒤를 따라 다닐것이 아니
라, 우리 會員中에서 國會議員 程度를 여러 명 選出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高次的이며 넓은 意
味로 社會에 關與함으로서 우리 建築人이 社會에 對한
認識과, 地位를 確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強調하
고 싶다.

協會와 運營問題

協會는 會員의 모임體인 것이다. 따라서 會員을 爲
한 會員의 協會이어야 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그
래서 協會의 運營은 會員의 利益과 權威 向上을 目的
으로 만이 執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原則中의 原則인 것
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協會 運營이 이 原則을 잊
어서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前述한 바와같이 予
算을 쓰는데 있어서 運營의 妙를 살렸으면. 即 말하자
면,

總會에서 議決된 予算을 고대로 쓰는데만 끝나는 것
보다 (原來는 予算計劃 自体가 問題지만) 隨時로 突變
하는 事態에 對備하거나 會員의 利害와 關聯된 일에 對
한 補助 및 保障策에 쓰여졌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는것
이다. 이를 더 具體的으로 列挙하면

① 會員의 作品活動이나, 海外進出時, 作品 發表에 必要한 費用이나, 手續 節次에 關한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하고 補助.

② 會員의 事故나 死亡으로 因한 그 家族의 生活 對策과, 保障策을 세워 不幸을 可及의으로 解消

③ 住宅平面集, 詳細圖集, 見積, 示方의 方法, 監理의 要領 등등 設計 實務에 必要한 資料를 發刊 配付할 것.

④ 建築作品展示會를 開催, 一般에 建築에 對한 啓蒙과 協會 存立의 意義를 살리는 意味에서 傳統 行事를 삼을 것.

⑤ 定期的인 行事로 體育, 낚시, 바둑, 野遊會 등을 開催하여 實質의인 會員의 體力, 精神의 向上과 人和를 圖謀할 것 등등 大略의으로 意見의 骨字를 들어 보았다.

協會를 代表하는 會長이나 會長을 補完하는 任員은 어디까지나 이 協會의 存立原則을 正當하게 守則하고 執行하는 役割을 擔當한데 不遇한 것이다. 자칫하면 個人의 감투 意慾이나 組織만 믿고 派別이나 私利의 手段으로 利用한다고 認識하게 되면 이는 根本的으로 協會에 關與할 資格이 없는 人物로 보아야한다. 더욱이 會員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會員은 協會나 會長을 믿을 수 없다. 보기싫다고 느끼게 되었을때는 이미 이 協會는 結果的으로 有名無實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反對로, 會員 하나하나의 아픈것, 가려운것, 바라는것을 마음 속으로 울어난 行動으로 解決하거나 解決하려고 努力했을 때, 누가 그 會長이나 任員을 不信任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總會 選舉때 마다 “나를 會長으로 시켜주십시오”라는 式의 굴욕과 어리석은 手筈을 할 必要가 없게될 것이다.

한 집안의 어른이 그 人格이 훌륭하고, 어진 마음과 너그러운 慈愛로 그 家族들에게 잘 살수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을때 家庭은 和睦하고 繁昌하듯이 國家나 團體도 마찬가지로 適用된다고 본다. 孟子 첫 句節에도 “齊宣王이曰” 선생께서 不遠千里 내 나라에 오셨으니 亦是 將次 무슨 “利로움이 있겠음니까”라고 물은 즉 孟子께서 “何必曰. “利”를 말합니까. 다만 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王道의 根本을 말했다.

이는 勿論 時代가 다르다 보니 反駁도 있을것이지만 眞理란 나무의 뿌리 또는 집의 基礎가된다고 보아 變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建築人 自身の 自覺

故 케네디 大統領은 “國家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것이나 바라기前에 내가 國家를 爲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다”라는 좋은 말을 남겼다. 우리는 똑같은 時代, 똑같은 나라에 태어나, 똑같은 길

(職業)을 걷고 있는 因緣 깊은 사이라는것을 알고 살고 싶다. 내 自身 내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온것이 아닌지의 심할때가 있다. 自己라는 人間○○○ 여기에 家族關係, 친구, 先, 後輩등이 울타리가되여 그 存在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만 잘 산다” 또는 내가 잘 못한다”式이 結局은 自身을 잃어버리는 것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自己의 마음과 몸은 自己것이라고 하겠지만 自己를 감싸주고 保護해주는 울타리 없이는 그 存在를 올바르게 認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無人島에서 혼자 산다면 別 問題지만 社會란 人類 構成體의 하나인 自己 周圍에 影響주고 影響을 받고 있는 以上, 自身의 一挙手 一動作, 行動하나 그리고 마음 갖임 하나 하나가 重要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우리 建築人이 잘 살 수 있는 길. 더 나아가서 우리 人間이 잘 살 수 있는 길과 通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對해서 생각해본다.

무엇보다는 우리는 信義를 얻어야겠다. 社會가 建築人에 對한 미증, 即, 마음 놓고 設計를 마치고 監理를 봐 달라고 할 수 있는 信用을 받고 있는지? 수

지금 建築士 5人連帶責任問題는 一種의 우리에게 주어진 不信이란 點을 盟心하여야 한다. 우리를 믿어달라기에 앞서 믿을 만한 處世를 하였는가를 먼저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設計期日을 지키지 않거나 不實工事を 默認하거나 不法建物を 合法化시키는등 이로 因한 大小建物의 倒壞事故로 말미암아 國家나 社會에 끼친 被害가 크다고 볼때, 이러한 素因의 防止, ... 및 根滅이 곧 우리의 信義 回復의 길인 것이다.

다음 우리는 協同心이 缺하고 있는 것이다. 合同事務所의 意義는 두말없이 贊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成敗의 鍵 이 바로 協同精神인 것이다. 이것이 地區別이나, 部分的인 合同보다도 한 사람도 離脫없는 全體的인 合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江南이나 北部分所에서 結實을 보인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데 技術者의 固疾인 運營面의 無能과 根本的인 協同精神의 바탕의 未備狀態로 미루워 보아 아직 樂觀할 수없는 過渡期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程度의 痛症이 가려왔은 然後에 全般的인 合同이 이루어졌을때 우리는 여기서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大小事를 莫論하고 誠意를 다하는 同時, 좀 더 發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誠意를 다한다는것 即 自己 있는 힘과 (技術)과 精力을 傾注한다는 姿勢야말로 우리의 잘 살 수 있는 길의 基本 活素라고 본다. 있

이것이 바탕이 되어 서로가 믿고 協力하고 서로가 키우고 자라는 方向으로 努力한다면 우리 建築人은 누구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다.